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나에게 쓰는 편지

김영문 브루노 신부

늘 기도하는 그대
 주님과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지
 미리 약속했는가

주님과 만남의 시간 다가오고
 거룩한 그분을 향할때
 아는가, 주님 먼저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걸어오는 발길을 사랑의 두 손을
 그대를 기쁨으로 반기시는 것을

마주하시는 주님과 만난 오늘
 그대 마음 어떠했는가
 궁금하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08/01/2025 기준
 현재 약속 금액 - \$ 29,935
 현재 기부 금액 - \$ 28,295
 현재 참가 인원 - 78명



성가 안내

입당성가: 4

예물준비 성가: 340, 342

성체성가: 152, 180

파견성가: 63

연중 제20주일(8/17)	토요 저녁(7:00)	주일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7명	69명	236명	80명	48명	480명



4차 라테란 공의회를 열어 교회를 쇠신한 176대 교황 인노첸시오 3세

중세기 가장 위대한 교황들 중 한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176대 교황 인노첸시오 3세(1198~1216)는 「교황직이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에도 달했다」고 표현한 한 역사가의 말처럼 교회 역사 안에서 교황직의 절정기를 이루었던 인물이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개최, 교회의 광범위한 조직과 제도를 쇠신하였고 교황 중에서는 최초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vicarius Christi)」로 부르면서 유럽 안에서의 교황 지위 임무가 어떤 의미인지 각인시키며 교황권을 중세 국가와 권력의 중요 핵심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1160년경 이태리 캄파냐에서 트라시문도 백작 아들로 태어난 인노첸시오 3세는 로마 안드레아 수도원 학교를 다녔으나 프랑스 파리와 이태리 볼로냐에서 신학 법률 공부를 마쳤다. 당대 유명한 학자였던 우구치오(Uguccio)와 베드로 코르베유(Corbei)에게 사사를 받고 최우수 신학자와 법률가로서 명성을 얻었던 그는 1190년 삼촌이었던 교황 클레멘스 3세에 의해 부제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1198년 교황 첼레스티노 3세 서거 후 추기경단의 만장 일치로 교황 직위에 오른 인노첸시오 3세는 당시 37세였고 추기경 중에서 최연소자였다.

로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안들, 그리고 필요와 요구를 잘 알고 있었던 교황은 재위 초기에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통찰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갔다. 교황령에서의 교황권 불안정 문제와 맞닿아 있던 면에서 인노첸시오 3세는 교황권을 법률적으로 확고히 하는 일에 몰두했다. 또한 교황직을 엄격한 신권정치적(神權政體的) 입장에서 행사하려 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입장에서 영적이며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모든 권력은 교황을 통하여 군주들에게 위임되므로 군주들은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는 것처럼 교황에게 예속된다는 것이다. 교황좌에 오르며 행한 연설에서는 그러한 인노첸시오 3세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일찌기 예언자들은 본인에 대해 본인을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리스도는 사도를 통해 본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고 말했다. 그러므로 본인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본인은 비록 하느님보다는 낮을지라도 사람보다는 높다」

이 연설을 통해 그는 그때까지 교황들이 사용해온 「성 베드로의 대리자」란 칭호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바꾸어 놓았다.

인노첸시오 3세는 세속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서 교황권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로 인해 교황직은 실제로 서구 그리스도교를 이끌어가는 질서 인자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실제 황제 선출과 관련,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의 중재와 결정은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들간 분쟁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교황이 그리스도교계의 수장으로서 같은 신앙으로 묶여진 서구 국제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런 배경에서 인노첸시오 3세는 서구를 교황의 봉건국가 체제하에 세계 제국으로 건설하려 힘썼고 시칠리아를 비롯 영국, 아라곤, 포르투갈, 덴마크,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등이 교황의 봉토주권(封土主權)을 시인함으로써 그 의지도 실현시켰다. 이로써 인노첸시오 3세 재임기간 동안 교황정의 영토는 두배로 늘었다.

성지회복을 위해 1202~1204년까지 진행된 제4차 십자군 원정은 인노첸시오 3세 교황에게도, 교회 역사에도 손실을 가져온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십자군들이 교황이 지시한 성지로 가지 않고 콘스탄티노플로 진격, 점령시킨 후 라틴 제국과 일련의 국가를 건설했는데 교황은 이를 묵인하였고 동서 교회간 갈등은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알비파(Albigenses)이단을 막기 위해 재위 동안 많은 시간을 고심했던 교황은 1208년 이에 대항하는 십자군을 조직하고 이단과 세속 권력이 공모하는 것을 단절시켰다. 이들은 14년간 치열한 싸움 끝에 평정됐으며 이때 이단의 종식을 위한 종교 재판도 시작됐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가장 큰 치적은 1215년



개최한 제4차 라테란 공의회라 할 수 있다. 500명의 주교와 800명의 대수도원장들이 참여한 중세기 교회 모임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렸던 이 공의회는 교회 개혁을 추진하고 신앙과 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평화 정착을 모색한 회의였다. 성사에 대한 교회 가르침이 재확인됐으며 「신앙의 전파와 사목」이 주교의 주요 직무로 결의됐다. 교회를 내적으로 쇠신하고 심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던 라테란 공의회는 결과적으로 이후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교회법에 정통했던 교황은 많은 법령들을 반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6000통의 서한을 발송하여 교회법 학자들을 장려하는 한편 1209~1210년 재위 10년간 반포한 칙령들을 출판, 교회법 전문 학자 학교로 유명했던 볼로냐 대학교에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발트지역에 선교사를 파견, 전교에도 힘을 쏟으며 늘어나고 있는 수도회를 적극 지원하였고 특히 성 도미니코와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순회 설교가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1210년 작은형제회가 승인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노첸시오 3세는 성지 해방을 위한 제5차 십자군을 준비하던 중 열병으로 페루자에서 선종했다. 성 라우렌시오 성당에 안장됐던 교황의 유해는 이후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로마 라테란 대성전으로 옮겨졌다.

공 지 사 항

1 미사 안내

8/31(주일) 11:30 미사는 Sunday School 여름 캠프로 인해 없습니다.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당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을 봉헌합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3 야외미사 2025

“우리 모두 하나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2025년 야외미사를 개최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하나되는 모습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 일시 : 9/7/2025(주일) 9:00am-3:00pm
- 장소 : Cottage Lake Park
- ★ 9/7(주일)에는 야외미사 외에 미사가 없습니다.

4 울뜨레야 피정

꾸르실로 본질과 울뜨레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 피정을 합니다.

- 일시 : 8/30(토) 9:00am - 5:00pm
5:20pm - 친교의 시간

5 묵주 세일

본당 설립 50주년 맞이 묵주 기도 50만단 봉헌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지향으로 성물방에서 묵주를 20% 할인 판매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종류 : 어린이 묵주, 5단 묵주, 팔찌 묵주, etc.

6 가을학기 성경공부반 모집

(1) 축복받은 성경 읽기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주1회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팀 구성 : 창세기반, 탈출기반, 레위기반
- 대상 :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신자분들

(2) 가톨릭성서모임 그룹 공부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생활화하는 그룹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 과정 :
창세기 그룹 - 그룹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탈출기 그룹 - 창세기 그룹 공부를 마친 신자들

★ 모임 시작 : 9월 중순 이후
(반/그룹별로 추후 연락)

★ 담당 : 교육분과 최정필 미카엘

★ 신청 : 본당 사무실

7 성 김대건 한국학교 25-26학년도 1학기 등록

- 일시: 9/12(토요일, 13일) 개강
- 등록방법 : 홈페이지(<https://sakkoreansschool.org/>), QR코드 등록, 개학날 학교에서 직접 등록
- 금요일 : 6:30-9:00PM
- 토요일 : 9:30AM-12:00PM
- 수업료 : \$270(교재비 포함),
신입생 등록비 \$10 별도

● 수업료 Check 이름 :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Korean School)



8 양윤모 필립 신부님 특강

A FULPHILING WEEKEND WITH FR. PHIL
한인들의 신앙 여정에 영적인 충만함을 더해줄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연을 통해 한인으로서의 고유한 신앙 여정을 되돌아 보는 가운데 믿음과 친교와 전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9/13(토)
-오후 5:00 1부 : 강연
-오후 7:00 2부 : 찬양의 밤
-오후 8:30 3부 : 미사 (전신자 대상)
- 일시 : 9/14(주일)
-오전 11:30 미사/ 신부님과의 만남(4-12Gr)
-오후 4:00 신부님과의 만남(청년회) + 미사
풍요로운 강연을 위해 QR코드로 간단한 설문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특강으로 인해 9/13(토) 미사는

오후 8:30으로
시간이 변동됩니다.
착오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9 성 김대건 한국학교 교사 모집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며 한글 교육을 위해 애써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
- 시간 : 토요일 오전
- 문의: 교감 신정희 실비아
718-310-8152 (sakks10@gmail.com)

입당송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자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이사 66,18-21
<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데려 오리라.>

화답송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제2독서..... 히브 12,5-7.11-13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49-53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최병규 양성림 양요한 박원규 유애림 김용현 이문선 정명자 안창남 유주연 김창환 오해성 광영준 신 정 한천혜 지유선 이천우 김병철 한춘미 이경원 오현주 장승연 윤창섭 조항영 박명완 안승훈 강범수 최민지 조승희 강승호 공세진 이진만 김요셉 신경협 안신자 하길용 최선기 유경중 이장원 Lawrence Hynne [감사헌금] 정순도 이명희 유주연 정명자

[교무금 PushPay] 백승진 이재용 이서영 안마슈 안정희 구미경 김형근 성효진 유현주 윤성욱 [성소후원회비] 이명희

주일헌금	교무금	PushPay	Sunday School Summer Camp Registration Fee	American Online Giving Foundation	Church in Africa (2차헌금)	감사헌금
\$6,171.00	\$7,185.00	\$2,997.70	\$3,420.00	\$828.00	\$401.00	\$360.00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경력맞사지,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티트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옥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겐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티트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강성수(가브리엘)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채널 등 425-774-1004/253-835-1004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Lina Wellness Clinic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다이어트약/영양 수액주사 Linawellnessclinic.com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 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atering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모닝 줄기세포/탈모케어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유전성·스트레스·출산 후 browever.com/morivive 206-572-0633(이채연 릴리아나)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갈비·오징어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수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8/28/25)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8/25)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문화교육부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옛것과 새것」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성찰하고 있는지, 또 인공지능을 선하게 이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연재로 심기로 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교황청 문화교육부 인공 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

옛것과 새것 (Antiqua et Nova)

5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공 지능은 “농업, 교육, 문화에 중요한 혁신을 가져오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삶의 수준을 높이며, 인간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증진할” 수 있고, 그리하여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인공 지능은 단체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차별과 소외에 맞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여러 방식으로, 인공 지능은 인간 발전과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다.

52. 그러나 인공 지능은 선을 증진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좌절시킬 수도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는, 디지털 기술이 현대 세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물질적 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공 지능은 소외와 차별을 영속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창출하며 ‘디지털 격차’를 확대하고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53. 나아가, 주요 인공 지능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이 소수의 강력한 기업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인공 지능 시스템은 본질적인 특성상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어느 한 사람도 계산에 사용되는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완벽하게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책임이 없으면, 인공 지능이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산업에 유리한 여론몰이를 위하여 조작될 위험이 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단체들이 “은밀하게 침투하여 갖가지 형태의 통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양심과 민주적 절차를 조종하는 기제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다.

54. 더욱이 인공 지능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기술 지배 패러다임’을 조장하는 데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 이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기술 수단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서는, “마치 실재와 선과 진리가 이러한 기술과 경제의 힘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형제애는 종종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효율성을 위하여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이 침해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온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과 분쟁을 심화시키는 기술 발전은 결코 참다운 발전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공 지능이 “다른 형태의 발전, 곧 좀 더 건전하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통합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55.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율성과 책임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자율성이 커질수록 공동체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각 개인의 책임도 커진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책임은, 개인의 자율성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능력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라는 뜻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인공 지능은 단순히 경제적 또는 기술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공동선’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이다.

인공 지능과 인간관계

56.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단언한 대로, 인간은 “그 깊은 본성에서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도 없다.” 이러한 확신은 사회생활이 인간의 본성과 소명에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적 존재인 우

리는 상호 교류와 진리 추구가 수반되는 관계를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 진리 탐구를 돕고자 이미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다고 여기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57. 이러한 탐구는, 인간 의사소통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역사와 사고와 신념과 관계를 지닌 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만남과 상호 교류를 전제로 한다. 우리는 인간 지성이 다양하고 다면적이며 복합적인 실재, 곧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정서적이며, 개념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실재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러한 역동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야기 나눔이나 온화한 대화 또는 열정적 토론 안에서 함께 진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침묵과 고통의 순간도 수반됩니다. 그러나 개인과 민족들의 폭넓은 경험들을 끈기 있게 모아들일 수 있습니다. …… 형제애를 건설하는 과정은 지역적이든 보편적이든 참된 만남을 향한 자유롭고도 열린 정신으로만 나아갑니다.”

58.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 지능이 인간 관계에 제기하는 도전 과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기술 수단들처럼, 인공 지능은 인류 가족의 결속을 증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인공 지능은 현실과의 참만남을 방해할 수도 있고, 결국 “인간관계에 매우 우울한 불만을 야기하거나 외로움이라는 해로운 감정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진정한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과 호소와 기쁨을 공유하는 풍성한 관계를 요구한다. 인간 지성은 상호 관계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풍부해지므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의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필수적이다.

59. “참다운 지혜는 현실과의 만남을 전제한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인공지능의 발전은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인공지능은 인간 지성의 산물을 효과적으로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대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연관된 글, 음성, 영상과 그 밖의 탁월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이 아닌 도구라는 본질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모호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언어가 인공지능을 의인화하는 경향이 있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60. 인공지능의 의인화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여, 어린이들이 인간 관계를, 챗봇(chatbot)과 하듯이, 거래 방식으로 이해하는 상호작용 양식을 발달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청소년들이 교사를 그들의 지적 도덕적 성장을 지도하고 길러 주는 스승이 아니라 그저 정보 제공자로 여기게 만들 수 있다. 타인의 선의를 위한 확고한 헌신과 공감에 뿌리를 둔 진정한 관계는 인간의 총명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61.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은 아무리 의인화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은 그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생성되는 표정이나 문구로 축소될 수 없다. 감정은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전 존재로 세상과 자기 삶과 관계를 맺는지를 반영해 준다. 이때 신체가 그 중심 역할을 한다. 진정한 공감은 경청하고, 결코 축소시킬 수 없는 타인의 유일무이함을 인정하며 다름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타인의 침묵 이면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이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분석적 판단 영역과 달리, 진정한 공감은 관계 영역에 속한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계속 구별하면서도 타인의 생생한 경험들을 직관하고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

공 지능은 공감적 반응을 모방할 수 있지만, 진정한 공감이 지니는 매우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본질을 복제할 수는 없다.

62. 앞서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을 마치 하나의 인격처럼 잘못 제시하는 것을 언제나 피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속이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윤리적 위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성(性) 영역을 포함한 인간관계 등 다른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속이는 것도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며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면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

63. 갈수록 단절되어 가는 세상에서, 일부 사람들은 깊은 인간관계, 단순한 동반자 관계, 또는 심지어 정서적 유대감을 찾아 인공지능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진정한 관계를 경험하지만, 인공지능은 단지 그 관계를 모방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맺는 그러한 관계는 한 사람이 본연의 존재에 맞게 성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인공지능의 사용이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인연을 증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총명한 자아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와 다른 이들과 이루는 관계를 기술과의 상호작용으로 대체시켜 버리면, 진정한 관계성을 생명 없는 형상으로 대체시키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시편 106[105], 20; 로마 1, 22-23 참조). 우리는 인공지능적인 세계 속으로 도피하지 말고,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공감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모든 이들과 친교의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헌신적으로 뜻있게 현실을 마주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인공 지능, 경제와 노동

64. 인공지능은 여러 학문이 관여하는 그 특성상 경제와 금융 체계에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 현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는,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금융, 미디어, 특히 마케팅과 영업, 물류, 기술 혁신, 규정 준수, 위기관리 분야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야들에 인공 지능이 활용되면서, 엄청난 기회와 위험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인공 지능의 양면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무엇보다도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소수 대기업이 장악하여, 인공지능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그러한 대기업들만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가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65. 경제-금융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영향의 또 다른 광범한 측면들, 특히 구체적 현실과 디지털 세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측면들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우선 사항은, 주어진 맥락 안에 다양하고 대체 가능한 형태의 경제 금융 기관들의 공존에 관한 것이다. 이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실물 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여 실물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이로울 수 있으므로 장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어떠한 공간적 유대의 제약도 받지 않는 디지털 현실은, 특정 장소와 구체적인 역사에 뿌리를 둔 공동체들보다 더 무미건조하고 비인격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공동체들은 공통의 가치와 희망을 지니면서도 불가피한 의견 불일치와 차이를 특징으로 하며 공동의 길을 걸어간다. 이러한 다양성은 공동체의 경제생활에 부인할 수 없는 자산이 된다. 경제와 금융을 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맡겨 놓으면 이러한 다양성과 풍요로움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절차와 표면적인 친밀함만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관련자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경제 문제들에 대한 많은 해결책들이 더 이상 달성될 수 없게 된다.

66. 인공지능이 이미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노동계이다.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수많은 직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며 다양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으로 인공지능은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동자가 더 혁신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음 주에 계속〉